

Revelation 21:1~8. The Glory of God's Salvation. 계 21:1~8, 하나님 구원의 영광.

I asked this question and briefly talked about it in one of the evening services, but I will ask again. What are the three essential elements of a thriving Christian life? We learn from the Bible that they are faith, hope and love. If you look at Paul's letters, especially in Colossians and the First Thessalonians Ch.1, Paul gives thanks to God, because of the good example of their faith, love and hope: they were standing firm in the faith of our Lord. They were growing in love and commitment to one another. They were engaging their hearts to the hope laid in heaven and rejoicing in it.

So, while it is important to have faith, love and hope in our Christian lives, here is a problem we face in many of today's churches. We spend a great amount of time and energy, teaching about faith and love, but it seems, we are neglecting the hope. It seems that many Christians have an oversimplified understanding of Christian hope, and therefore, it is a barely thought-about and discussed topic (I admit that, until I studied the Book of Revelation, I also had a vague understanding of Christian hope as well).

Now, this morning passage is a passage that talks about the glory of God's salvation. It is a passage that talks about the details of God's final salvation in the future. We further see that these details of God's salvation also become the fundamental ground for our Christian hope. So, for this morning's sermon, I am going to explore the details of God's salvation that becomes our living hope, in the following order.

- How God's sovereign power is revealed in His Salvation.
- The benefits we will enjoy, as the result of God's salvation.
- How we can live our present lives, in light of this hope we have in God's salvation.

이전 저녁 예배 설교에서 물었던 질문이었지만, 같은 질문을 다시 물으며 오늘 오전 예배 설교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번성하는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세 요소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이 세 요소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예로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 전서 1 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당시 교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난 믿음, 사랑, 소망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골 1:3~5, 살전 1:1~3).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고, 이웃을 향한 헌신과 수고 가운데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약속된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뻐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할 때,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강조하며 가르치기를 힘쓰지만, “소망”은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희망에 대해 너무 단순화된 이해를 갖고 있거나, 이 소망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 또한 요한계시록을 요 몇 년간 읽고 공부하기 전까지는, 기독교 소망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던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구원의 영광에 대해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때의 모습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하나님 구원의 약속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중요한 근거가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에서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다음 순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 구원 가운데 하나님 주권적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 하나님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혜택이 무엇인지
- 하나님 구원 안에서 발견되는 이런 소망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God's sovereign power, revealed in His Salvation.

To begin with verse 5, it says “He who was seated on the throne said, “Behold I am making all things new”...John describes that God was sitting on the throne, and the word “throne” is a very important word in Revelation. In fact, this word is mentioned 62 times in the New Testament, and 75 % of them are mentioned in Revelation.

So if we are to think about the meaning of this word in the context of Revelation, as the throne is a symbolic place for a king to rule, it has a symbolic meaning of political power and control. So, when today's passage tells us that, “God was sitting on the throne” this is to show his Great authority, who rules the universe as the sovereign King.

We further see, how God exercises His authority as the King, where he will conclude human history (He is the one who will put a full stop). If you look at verse 6 for example, God says “I am the Alpha and Omega”. Alpha is the first letter and Omega is the last letter in the Greek alphabet (it is like A to Z in the English alphabet). So, God says, he is the Alpha and Omega, this is to say that, he is the beginning and the end. In other words, this means that not only God is the beginner the human history by Creating this universe, but he is the One who will also end or complete human history.

From today's passage, we further learn, **what it means for God to conclude human history, where God will make all things new.** This is indeed another very important idea that is highlighted throughout today's passage. For example, when we first look at verse one, John says,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had passed away and the sea was no more.” If you also look at verse 5, God himself also says “Behold I am making all things new.”

1. 구원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

우선 5 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 합니다. “보좌”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총 62 번 언급되는데, 그중 대부분인 75% 정도가 요한 계시록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에서 “보좌”라는 단어를 정의하자면, 보좌는 왕이 앉아 통치하는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 권력과 통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함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그 권능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이냐 할 때,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권능 가운데 이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 하실 (인류 역사에 마침표를 찍으실) 분으로 말씀합니다. 그 예로 6 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문자의 처음과 마지막 문자이고 영어 알파벳으로 치면 A~Z 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 하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 하심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임을 의미 합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로 우리가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더라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1 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5 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Now, there is a debate o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all things new.” Just like building a brand-new house, does this mean, God will completely demolish the old house and build a new home? Or does this mean God will renovate or renew the existing house? Most of the commentaries I read favour the second view. So, they say, it is not about God creating all things again, but it is about God completely renewing the existing creation.

You can think about this in light of Jesus’ resurrection. When Jesus died and was resurrected, it wasn’t like, Jesus’ first body, was dead and completely gone, and he was resurrected with another new body. But while Jesus was in His existing body, he was risen with a completely new nature that is free from decay and death. So, in light of this understanding, when God says, he is making all things new, this is to say that, he will completely renew the entire existing creation.

Now, one very important aspect of God’s renewing work, we see from today’s passage is “coming down of New Jerusalem”. If you look at verse 2 for example, John says, “I saw the holy city, new Jerusalem, coming down out of heaven from God.” One important meaning of Jerusalem, we can draw from the Bible, is that, it symbolises the dwelling place for God and His people. We can accordingly see, as the New Jerusalem comes down from heaven, it is God who establishes the eternal dwelling place for His people.

여기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는 주제입니다. 새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낡은 집을 완전히 허무시고, 새 집을 지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갱신한다, 쇠신하다 (renew)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기존의 것을 쇠신하신다는 의미인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제가 읽은 대부분의 주석은 두 번째 견해를 선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물을 없애시고 다시 모든 것을 새로 창조하심이 아니라 기존의 창조물을 완전히 새롭게 갱신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는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돌아가신 예수님 기존의 몸은 없어지고, 새로운 두 번째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기존의 몸”이 썩지 않고 죽음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본성의 몸으로 갱신되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에 비추어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은 그가 기존의 창조물을 완전히 새롭게 갱신(renew)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중요한 모습의 하나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로 우리가 2 절을 보면 요한은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도 출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거하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거할 수 있는 영원한 거처를 세우심을 의미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을 권능 가운데 다스리는 왕으로서, 인류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분입니다. 마침표를 찍음의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이며, 새롭게 하시는 모습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영원한 거처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The benefits of God's Salvation.

As God's people dwell in this new City, we see the details of the benefits we will enjoy as the result of God's salvation. So, for the 2nd part of the sermon, I am now going to spend some time looking into the details.

It is first important to see that, we enjoy this benefit because of God's great faithfulness! For instance, if we first look at verse 3, it says, "V3 "Behold, the dwelling place of God is with man. He will dwell with them, and they will be his people, and God himself will be with them as their God."

From this verse, we see the famous covenant formula, "I will be your God, and you will be my people." This covenant formula is something that sits at the centre of His redemptive work, and throughout the Bible, so we can see this is continually mentioned throughout the Bible. For example, if you first look at Genesis 17:7, it says...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as an everlasting covenant between me and you and your descendants after you for the generations to come, to be your God and the God of your descendants after you."

This idea of covenant is again repeated in the New Testament. If you look at Hebrews 8:10, for example, it says... "This is the covenant I will make with the house of Israel after that time, declares the Lord...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will be my people."

So, in light of this covenant, we may ask, why does God save us? What's the reason we enjoy the wonderful benefit of God's salvation? We learn that, it is because God's covenant promise that, He will be our God and we will be His people! And from today's passage, we see the glorious picture of this covenant promise is finally fulfilled! This therefore reveals God's great faithfulness in his work of salvation. And when we know that our salvation lies on this faithfulness of God, this brings us great confidence and assurance.

2. 하나님 구원의 혜택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성안에서 거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구원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혜택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예로 3 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 유명한 언약 공식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 공식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사용되는 핵심적인 말씀으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예로 창세기 17:7 절에서는 이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러한 언약의 약속은 신약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그 예를 히브리서 8:10 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런 언약의 약속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묻는다면, 이는 그가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 언약의 약속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언약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한다는 것을 알 때, 이것은 우리에게 큰 확신을 가져다줍니다.

The next important question is, what does it mean that God will be our God, and we will be His people? In answer to this question, the dominant picture we see from today's passage is about living in His presence, living in fellowship with Him, enjoying His protection and comfort.

So, if you first look at verse 2, our relationship with Christ is described in a marriage relationship, where it says "prepared as a bride adorned for her husband." We notice that bride and groom is the common metaphor used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Christ in the Bible. The reason is to tell us that, just like a marriage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 we enjoy with God is not distant and superficial but it is a committed and intimate relationship we enjoy in union with Christ.

And as we live in God's presence, in this intimate fellowship with Him, today's passage also highlights the idea of enjoying great safety and welfare, in separation from sin and evil.

For example, if you look at verse 1, it says...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had passed away, and the sea was no more." We may ask, Isn't the sea a beautiful part of God's creation? What does it mean that the sea is no longer existing? If you look at Revelation 13:1, the sea is a place where the beast is coming from, and the beast symbolises government authorities that stand against God and persecute Christians. So, when it says, there was no more sea, this is to say that there is no more beast or government authority to oppress and persecute Christians.

If you also look at the ending verse (v.8), it talks about the ultimate destination for those who are not in Christ... "But as for the cowardly, the faithless, the detestable, as for murderers, the sexually immoral, sorcerers, idolaters, and all liars, their portion will be in the lake that burns with fire and sulfur, which is the second death." So, this verse basically says that all those who are not in Christ and practice sin and evil will be judged and destroyed.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그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보호와 위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선 2 절을 보면,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결혼의 관계로 묘사됨을 봅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와 같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됨을 보게 됩니다.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랑 신부의 관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이 관계는 거리감 있고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헌신 되고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할 때, 오늘 본문은 또한 죄와 악의 분리 가운데 하나님임재 안에서 영원한 안위와 안녕을 누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예로 1 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 아닌가요? 이 구절에서 바다가 없어졌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질문의 답으로 요한계시록 13:1 절을 보면, 바다는 "짐승"이 올라오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반기독교적 정부를 상징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다가 사라졌다는 1 절의 말씀은, 짐승, 곧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자들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8 절을 보더라도, 불신자들의 영원한 멸망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구절이 말씀하는 요점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와 악을 일삼는 자들은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As we live in this fallen world, we often become victims of sin and great evil. When we think about the horrifying Bondi Westfield incident that killed 6 people, 5 of 6 victims were women, and the only man who was killed was the security guard. And it was obvious that the killer was deliberately aiming for women. As a father of 2 daughters, this really concerns me, as women can be more vulnerable to being a victim of great evil.

Like this example, as we live in this fallen world, the sin and evil of this world, concern us, and we can therefore suffer. But the clear picture we see from today's passage is that, as sin and evil are judged and destroyed, we will enjoy great comfort, security and comfort in God's presence.

So, we can see a glorious picture of this in verse 4, where John says... "He will wipe away every tear from their eyes, and death shall be no more, neither shall there be mourning, nor crying, nor pain anymore, for the former things have passed away."

- Application

As we see the glorious picture of God's salvation and the benefits we will enjoy, the question here is, are we actively engaging our hearts and minds to this hope? As mentioned earlier, the problem we often face is that we are tuned out from this hope, we don't really anticipate this future hope. But why?

I was reading through Duvall's commentary, and he provided helpful insight. He says that this is perhaps because we are so preoccupied with the glory and hope of this world... He says... Our hope can be dulled by distractions...with our shops, shows, sports, games, tourism, recreation, cosmetics, plastic surgery, virtual reality, and the endless glorification of health and youth, our culture is a vast diversion to make us forget our hope." And because of this diversion, he further says, we turn away, we are tuned out from our Christian hope.

우리는 이 최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와 악의 피해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시드니 Bondi Westfield 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 사건을 보더라도, 살해당한 6명의 피해자 중에, 경비원이었던 남성을 제외 하고는 나머지 5명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여성만 노렸음을 의미 합니다. 이처럼 여성이 여러 악의 피해자가 되기 더 쉽기에, 두 딸은 둔 아버지로서 앞으로 살아갈 우리 딸 아이들의 안위가 걱정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예와 같이 우리는 이 최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와 악의 피해자가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되는 사실은, 이런 죄와 악은 결국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한 위로와 안전을 누리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4 절에서 보게 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 적용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그림과 우리가 누리게 될 혜택을 보게 될 때, 여기서 물을 수 있는 질문은 과연 얼마나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느냐? 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종종 직면하는 문제는, 이 소망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고, 큰 기대감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저는 Duvall 이라는 분의 주석에서 그의 통찰력 있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이는 아마도 우리가 너무나 세상 영광과 소망에 매료된 채 살아가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산만함으로 인해 무더질 수 있다... 쇼핑, 쇼, 스포츠, 여행, 오락, 성형, 건강과 젊음에 대한 끝없는 미화는 우리를 너무나 산만하게 함으로, 우리 기독교 소망을 잊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기독교 소망으로부터 돌아서며 벗어나 버린다."

The danger of this worldly hope is that, they are all short-lived and empty hopes. How vain and painful would it be, after devoting all our lives, pursuing these hopes and realised that they were only empty meaningless hopes!

I had a chance to listen to a sermon, a few years ago, on the topic of depression. The preacher himself suffered from severe depression, and he mentioned the causes that trigger depression. Speaking from his personal experience, he said, when he lost what he dearly loved and hoped, that when he started to suffer from depression. I also have a family friend, who has similar experience. She invested a quite significant amount of money into a business, with the hope of becoming wealthier. Eventually, she lost all her money & her hope was destroyed, and that's when she started to suffer from depression.

Like these examples, when we devote our lives to pursue these empty hopes, it will only bring us emptiness and therefore make us suffer. But the great blessing of our Lord is that he gave us far more glorious and eternal hope to look at! And it is when we tune our hearts into this hope that we can live a thriving life as Christians with great patience and assurance.

2. How can we live our present lives, in light of this hope?

Then we come to the last point of the sermon. How can we live our present life in light of this hope? In answer to this question, verse 7 says... “The one who conquers will have this heritage, and I will be his God and he will be my son.”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word “conquers” as it is a very important word in Revelation. This verse is basically saying that this hope is for those who live a conquering life!

이 세상 희망의 위험은 지극히 일시적이고 공허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서 이러한 희망을 좇다가 그것이 의미 없는 공허한 희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헛되고 고통스러울까요!

몇 년 전 우울증을 주제로 한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심한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고, 자기 경험을 토대로,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기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희망했던 것을 잃었을 때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의 아는 가까운 지인분 중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부자가 되겠다는 희망으로 꽤 많은 돈을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1억 원이 넘는 돈을 모두 잃게 되었고, 결국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예처럼 우리가 세상 소망을 추구하며, 우리의 인생을 헌신할 때, 이는 결국 공허함과 고통만을 안겨 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축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이 소망에 쏟을 때, 우리는 인내와 확신 가운데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런 소망 가운데 어떻게 현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은혜 안에서 주어졌다 할 때, 이런 소망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7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말씀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Then we may ask what does it mean to live a conquering life? We see the clear answer to this question in Revelation ch2-3 when Jesus speaks to the seven churches. When we closely examine the pattern of Jesus' word to the seven churches. After Jesus gives specific instructions to the individual churches, he always concludes with the following phrase "The one who conquers". If you look at Jesus' instruction to the church in Smyrna for example, Jesus first instructs them to remain faithful, while they are persecuted for their faith, and then Jesus says "The one who conquers will not be hurt by the second death."

So if we examine Jesus' instructions to the seven churches we get the idea of what it means to be the conquerors:

- When Jesus speaks to the church in Ephesus, it is about discerning false teachers to stand firm in the truth.
- When Jesus speaks to the church in Smyrna, despite the persecution they receive, it is about refusing to compromise and remain faithful to the Lord
- When we look at Jesus' instruction to Thyatira as it says in 19, it is about growing in the work of love and faith.
- When we look at Jesus' instructions to the church in Philadelphia, conquering is about holding fast to the Word of God with patience.

So in summary, we clearly see what it means to live in light of this hope we have. It is about standing firm in the truth, fighting against false teachings, and faithfully following Jesus' teaching and His words. It is about growing in the work of love and faith.

그러면 다음으로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은 "이기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3 장에서,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는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교회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 후, 항상 "이기는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십니다. 그 예로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2:10 에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한 후, 11 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 "이기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에 말씀하실 때, 이는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을 분별하며, 진리 안에 굳건히 서 나가는 것임을 보게 되고 (2:2)
-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실 때, 이는 외부의 박해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2:10)
-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실 때, 이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며 (2:19)
-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실 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 그 가운데 인내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3:10~11).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이는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거짓된 교리와 싸워가며, 신실히, 충성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르며, 사랑과 믿음과 헌신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Hope is a very powerful tool that motivates our lives. This means we can labour in the Lord when we are engaging our hearts and minds to the right hope. So I encourage you to see the hope that God promises in his glorious work of salvation and accordingly devote our life to the work of the Lord, to be the conquerors.

Today's passage has some significant meaning for those who are not in Christ, so if you are not yet a Christian, I hope that today's passage gives you the opportunity to think and prepare for the coming future. This is because...today's passage really shows the contrasting picture between those who are in Christ and not in Christ: When Jesus returns, while it is a day of great salvation and joy for those who are in Christ, it will be a day of great judgment and misery for those who are not in Christ.

In light of this coming future, if you are not yet a Christian, I greatly encourage you to see that, God has provided a way for us to be saved from this coming future in His grace. If you look at verse 6 for example Jesus says "To the thirsty I will give from the spring of the water of life without payment."... I greatly encourage you to see the grace of God's salvation that is freely given to anyone who comes to him in faith and repentance. And it is my prayer that, in this grace we enjoy, instead of living our present lives with the fear of uncertain future, we would live our present lives with great joy and hope of the future.

소망을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헌신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 구원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그 소망을 바라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 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여기 계신 분들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생각하며, 준비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명한 대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날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비극의 날이 됨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런 분명한 미래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이, 어떻게 이런 심판으로부터,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나타내셨는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그 예로 6 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말씀을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므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산 소망과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